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교육 강화방안



교육학박사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업의 위기와 농업선진화 과제

신정부들어 농업·농촌 분야 보다 부가가치가 더 큰 식품산업이 농정의 대상이 되었다. 농정의 외연이 생산액 규모로는 3배(2006년 기준, 42조 규모의 농림어업 + 100조 규모의 식품산업), 인력 규모로는 2배(농림어업 종사자 178만명 + 식품산업 종사자 162만명)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가공·판매, 그리고 농촌을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는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농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야가 농정과 연계되어 정부 정책의 관심사가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현상은 과거보다는 분명히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농식품 산업 그리고, 확장된 외연을 가진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생산 농업의 중요성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더라도 모든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는 생산 농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 관련 산업 특히 식품산업 분야는 부가가치나 종사인구 규모의 최근 변화를 보더라도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기어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산 농업 분야는 종사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경영 승계자의 절대 감소로 인해 생산 기반의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라 오히려 생산 농업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선진화의 방향이 농업시장의 개방 그리고 기업농 위주의 경쟁력 확보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촌의 유지·존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생산 농업에 종사하는 일정 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개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최근 생산 농업 분야는 너무나도 다양한 경영상의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라는 내부적 압력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변하는 기후 패턴과 그에 따른 각종 자연 재해는 우리 농가들의 농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생산기술 이외에도 위기관리 능력을 포함한 고도화된 경영관리, 그리고 격변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경영 혁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 여부는 이러한 기술, 경영, 사회 부문에 대한 전문 역량을 조화롭게 갖춘 농업인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 농업의 경쟁력 제고의 원천을 인력에서 찾으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을 제시한 이래, 최근에는 신농업교육체제(2008. 6.)를 발표하였다. 신정부의 농업교육정책의 근간이기도 한 '신농업교육체제'에서는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의 비전하에 실습형 현장교육,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농업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업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은 10배(2005년 35억원 ⇒ 2009년 364억)이상 늘었다. 그런데 최근에 추진되는 이러한 새로운 농업교육 정책들이 너무 짧은 시기에 졸속적으로 도입,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 학계나 현장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너무 시급히 시행되고 있는 듯하다. 급한 과제가기는 하지만 다소 늦게 추진되더라도 관련자들이 함께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근본적인 우리 농업교육의 문제와 앞으로의 지향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농식품 산업으로 외연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영농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인 농업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업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의 농업교육은 크게 학교 농업교육과 사회 농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미래의 농업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농업교육과 현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개발하는 사회 농업교육은 교육 대상 뿐 아니라 교육 주체, 교육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에 각기 상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농업교육이 직면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계 학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게 양성해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양적으로 농업계 학교가 급감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전국에 73개가 존재하고, 이중 농업계 학과만 개설하고 있는 순수 농고는 25개이고, 농업계 전문대학은 24개로 이중 생산 농업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8개에 불과하다. 농업계 4년제 대학, 즉 농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37개이지만, 농업계 단과대학이 있는 학교는 28개이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대부분의 농업계 학교가 전통적인 농업 학교의 명칭을 버리고 산업 구분이 모호한 명칭을 택하고 있어, 어떤 학교와 학과가 농업계 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실제 교육 내용적으로도 이들 대다수 농업계 학교는 신입생 확보, 졸업생 진로 등의 문제로 기존의 농업 학과를 비 농업분야를 포괄하는 학과로 전환시키고 있어, 일부 농업계 전문대학을 제외하고는 농업계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농업인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부터 교육목표가 과거 “중견 농업인 양성”에서 “농생명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며, 농생명 산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농업계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교수마다 역량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학과들의 기본 지향방향은 생산농업분야보다는 생명공학(BT), 정보공학(IT), 나노공학(NT), 환경공학(ET) 등 농업관련 산업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 4년제 대학은 지방 국립대학 소속으로 있기에 현장 농업 분야에 (교수)인력이 충원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영농 현장에 대한 기여보다는 논문 편수

위주의 대학, 학과, 그리고 교수 평가 체제는 지역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학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대학(WCU)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 생산농업을 유지하는 학과는 학생 모집·졸업생 취업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탈농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 교수별 전공 세분화로 인해 개별 학점 위주 그리고 세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되고, 복잡 다양한 영농 현장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법칙과 이론 위주의 강의와 실험 교과는 영농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계 4년제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영농인력은 매년 200여명 수준으로 한국농업대학 일개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 규모에 지나지 않고 있다(표1 참조).

표1. 농업계 대학생의 진로 현황(최근 3년간 : 2005~2007)

대학 구분	년도	졸업생	취업			진학	입대	미취업	미상	취업률(%) ^P			
			계	영농	전공					영농	전공		
전문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a	2005	46	25	16	24	4	17	0	0	64.0	96.0	100.0
		2006	43	28	16	23	8	7	0	0	57.1	82.1	100.0
		2007	59	42	21	32	6	11	0	0	50.0	76.2	100.0
	한국농업대학	2005	206	192	192	192	0	5	0	4	95.5	95.5	95.5
		2006	193	181	181	181	0	4	0	2	95.8	95.8	95.8
		2007	193	176	176	176	0	4	0	8	93.1	93.1	93.1
	4년제 대학	2005	4,071	3,041	368	2,003	249	107	614	55	9.9	53.9	81.9
		2006	4,313	3,331	337	2,280	172	63	633	108	8.3	55.9	81.7
		2007	4,028	3,238	431	2,315	173	45	506	61	11.3	60.8	85.0
3년평균		4,137	3,203	379	2,199	198	72	584	75	9.8	56.9	82.8	
전체	2005	15,692	9,274	607	5,526	1,908	189	4,046	270	4.5	40.6	68.2	
	2006	16,409	10,310	518	6,332	1,797	131	3,960	205	3.6	43.7	71.2	
	2007	15,838	10,065	628	6,355	2,017	107	3,492	152	4.6	46.3	73.4	
	3년평균	15,980	9,883	584	6,071	1,907	142	3,833	209	4.2	43.6	70.9	

자료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2008. 내부자료; 박노복 등, 2008.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직접실태 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취업통계.

- a : 영농분야 취업자는 한국고용직업분류체계의 소분류 2321(곡식작물재배자), 2322(채소 및 특용작물재배자), 2323(과수작물재배자), 2324(육묘, 화훼작물재배자), 2325(가축사육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b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100
- c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생중 농업분야 취업자는 전공분야 취업자로 대체하였음.
- d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중 농업분야 취업자, 전공분야 취업자는 영농분야 취업자로 대체하였음.

한편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업 교육 역시 문제가 많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현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농업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그램이 전문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의 현장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내용에 걸맞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체계적인 평가 모형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차기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고, 이수자들에게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현장 컨설팅 연계나 학습 조직을 통한 지원 등 사후 지도 프로그램을 연결해 준다. 그렇지만 현실의 사회 농업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이를 강의실에서 농업인과 만나게 해주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기관에서 매우 소수의 담당인력을 두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거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상당수 프로그램이 일회적, 이벤트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간 내용의 연계는 매우 요원하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현장 강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교육 요소, 교육단계별로 보다 정교한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이다.

농업교육 성공사례와 시사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현장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성공사례는 그래도 우리 농업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준다. 먼저 현장 영농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 일부 농업계 전문대학의 교육에서 희망을 발

견할 수 있다. 농업계 4년제 대학의 낮은 영농취업률과는 대비가 되게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등 농업계 전문대학은 예비 영농인력 육성과 관련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업대학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생중 95.3%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졸업생 농가 호당 농가소득은 6,880만원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농업소득의 2.3배 높고,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4,132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농업대학이 한국농업의 국가대표를 양성기관으로서의 국가적 관심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제공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한국 농업은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라는 높은 사명감을 심어주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시키는 체계적 교육(1학년 기초이론 중심 교육 ⇒ 2학년 장기 현장실습 ⇒ 3학년 창업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자체(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체계적 졸업생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대생들의 영농분야 진출을 촉진시키고자, 졸업 후 농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정 운영을 농업계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역시 아직 시행된지 3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내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2008년 현재 총 11개 농업계 대학에서 1,050명들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 이론과 실습이외에 인턴실습, 현장실습, 견학/연수, 성공사례교육, 성공농업인과의 만남, 실습학기제, 해외연수, 미니농장 프로그램 등 현장 영농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표2 참조), 필자가 이 프로그램은 이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농업·농업인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였고(이수자의 85.7%), 농업이 한번

표2.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의 현장실무 교육과정(예 : 진주산업대학교)

프로그램명	이수시간	내용
인턴실습	매년 1~2주	방학동안의 농가 실습
현장실습	8월 64시간	학기 중 학교 농장실습 또는 선도농가 실습
국내견학/연수	4회 이상/32시간	성공농업인 농가, 농장, 농업관련 시설 견학
성공사례 교육	8회 이상/학기16시간	성공농업인 초청 강연
성공농업인과 만남	4회/년 8시간	지역 내 선도농업인과 학생들 간의 정기적 만남, 토론
실습학기제	선택	한 학기를 농가에서 연수를 수행하면서 해당학과 학점 이수
해외연수	선택	과정 우수자를 선발하여 선진 농업국 연수
미니농장	선택	학교 내 농장에서 2인 1조로 농장 운영

도전해볼만한 분야임을 발견(이수자의 92.4%)하고 있었다. 나아가 과정을 이수하면서 희망 진로를 영농분야로 변경한 학생도 16%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중 영농분야 진출 희망학생은 40%로 이들이 모두 영농분야로 바로 진학하지 않을 지라도, 잠재 영농 후계 인력의 육성 측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3년간 농과계 대학생 중 실업자가 3,000명 이상(표1 참조)인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계 대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여지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9년 강화군을 필두로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대학은 사회 농업교육의 성공 모형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들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해오던 단기성 연수 프로그램 외에 지역의 특산물 중심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비교적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농업인 대학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체계적 준비과정 없이 지자체들이 무조건으로 설립하여 다소 질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농업인 대학은 그래도 기존의 농업교육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개월 이상의 비교적 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절되지 않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현장 기술 외에 기본 원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생각하는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기술 교육이 외에도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재미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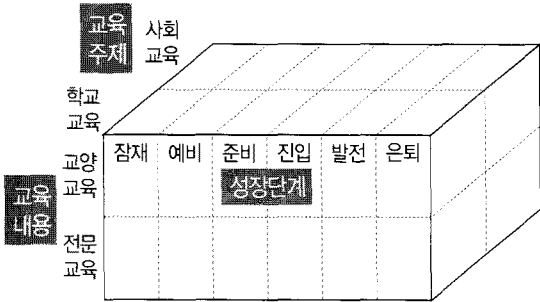
는 농업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실현하다. 교육 종료이후에도 사후 관리 프로그램(학습조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농 현장에서의 실천 조직(작목반,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한 내용이 영농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누구보다 현장 농민들을 잘 이해하는 지도사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농업인들의 교육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어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은 기존 사회 농업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농업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공사례의 확산을 보다 가속하고 확대된 외연에 적합한, 보다 체계적인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농업은 현재의 도전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를 이를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평생학습에 입각한 농업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농업교육의 영역은 그림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농업교육은 전 생애 걸친, 농업인 성장 단계(잠재 단계 ⇒ 예비 단계 ⇒ 준비 단계 ⇒ 신규 진입 단계 ⇒ 성장 발전 단계 ⇒ 은퇴

그림1. 농업교육의 영역



단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의 상호균형 되게 학습(농업관련 전문내용(생산기술, 경영) 뿐 아니라 민주시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양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재미있는 교육을 실시)되게 하고, 이를 위해 사회 교육기관과 학교 교육기관의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교육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대학, 농과대학, 농민단체, 품목단체, 지역특성화교육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농업인 대상 농업교육 역량을 농업인재개발원, 한국농업대학(및 거점 농업(전문)대학),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현재의 한국농업대학 외에 한국농업대학과 같은 위상의 농업(전문)대학을 2~3개의 주요 거점(중부, 호남, 영남)에 지정하여 취농 준비 단계 교육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규진입, 성장발전, 은퇴 단계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게 하고, 농업인재개발원은 농업인 교육의 방향을 유지하며, 농업인 교육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며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고, 일반농과대학은 잠재·예비 농업인력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도록

한다. 농민단체, 품목단체의 농업 교육은 회원 중심으로 특성화된 주제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하고, 그밖에 농촌정보문화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교육과 관련한 역할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 교육, 해외 연수 등 기존에 해오던 민간 위탁 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예측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에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기초, 기본 수준에서 반복이 안되고, 교육내용 간에는 단절이 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교재 개발 및 교육 진행에 기본이 되는 농업능력표준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고, 농업인 성장 단계별 교육 이력이 관리되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단계별 능력 중심 프로그램이 구성·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에서의 실천까지 책임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개발된 전문성을 영농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아가 신규 투자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학습 조직 관리 또는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체계적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적시(just-in-time)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중심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농업인 성장 단계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주체 등을 정리하

면 표3과 같다. 기존의 농업교육이 너무 신규 취농 준비자(준비 단계)와 현직의 초보 단계 농업인(진입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 농업기술 위주의 전문교육에 치우쳤는데, 교육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동경과 우호

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교육부터 시작하여 은퇴 단계의 농업인이 합리적 노후 설계를 하고,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모두 포괄하여 농업교육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㉞

표3. 평생학습에 입각한 농업교육 체계화

		잠재단계	예비단계	준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은퇴단계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농촌에 대한 동경과 우호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학에 종합적 이해 농업분야 직업 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사명감과 철학 농업경영인으로서의 기본역량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일반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 농업역량 농촌지역사회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전문역량 후진양성 관련 기술 농촌지역사회 리더로서 교양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노후 설계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역사회 개발, 사회 봉사) 종사에 필요한 역량
교육 내용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식품안전 농촌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역사 기초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농업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교양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학입문 농업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술(기초) 농업경영(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술(중·고급) 농업경영(중급) : 회계 리더십, 네트워킹 등 사회·조직관리 관련 역량(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술(고급) 농업경영(고급) : 위기관리, 경영혁신 사회·조직관리 관련 역량(중·고급) 교육, 컨설팅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이양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고등학교 일반시민 교사 농업관련 단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고학생 농과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전, 농대생 귀농준비 사회인 (농업법인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경력 5년 이하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견의 영농경력자 농업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또는 육체·정신·경제적으로 경영능력 제한자
주요 교육 기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초·중·고·대학 농업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고 농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업대학 / 거점농업(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업대학 / 거점농업(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업대학 / 거점농업(전문)대학 (전문)대학 (농업마이스터 대학)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민간 귀농단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학 품목, 농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기관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교육 체험활동 방송 교양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강의 실습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강의 형장 실습 농장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학습조직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학습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기대되는 교육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지지 농업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분야로의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계획서 수립 취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계획서 지속적 영농종사자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농가 경영 준비, 진입단계 농가에 대한 컨설팅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이양 계획서